

지역사회의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 참여 방안 : 영국 Bristol International Student Centre를 중심으로

손희권 |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 서론

한국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2년까지 약 1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까지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구비한 글로벌 인재(global talent)를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통감한 정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역량 인증제를 통하여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제는 대학이 제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보다는 대학에 대한 규

제적 성격이 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서비스, 특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부담을 전적으로 대학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대학의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community)의 풍부한 자원과 뛰어난 역량(competency)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가 다양한 형태의 양질의 서비스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회의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 참여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영국 브리스톨 외국인 유학생 센터(Bristol International Student Centre ; 이하 BISC)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BISC는 필자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University of Bristol)로 연구년을 다녀오는 동안에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BISC의 사례가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브리스톨 외국인 유학생 센터

여기서는 BISC의 목적, 운영 주체, 서비스 대상, 조직, 그리고 활동에 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이 설명은 BISC의 홈페이지¹⁾에 제시된 내용에 필자의 연구년 동안의 경험을 덧붙인 것이다.

1. 목적

BISC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브리스톨에 위치한 대학들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 브리스톨에 위치한 대학들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과 지역 주민들(local people)을 연결시킨다. 둘째, 브리스톨에 위치한 대학들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 간에 연결시킨다.

2. 운영 주체

BISC는 운영 주체의 측면에서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BISC은 대학 부설기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BISC은 특정 대학이 운영하지 않는다. 둘째, 기독교 조직(Christian organisation)이다. BISC는 브리스톨에 위치한 특정 교회(church)가 아닌 여러 교회들 중에서 뜻을 같이하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이

¹⁾ BISC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bisc.org.uk/>이다.

것은 BISC의 재정을 브리스톨에 위치한 특정 교회(church)가 아닌 여러 교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BISC는 자선 조직(charity, charitable organisation)이다. 즉, BISC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서비스 대상

BISC는 서비스 대상의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BISC는 브리스톨에 위치한 특정 대학이 아닌 모든 대학들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BISC는 기독교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조직

BISC의 조직은 크게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소규모 핵심 팀(small core team)이다. 이 팀은 브리스톨에 위치한 대학들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BISC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만날 수 있는 전일제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일정 액수의 보수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둘째, 시간제(part-time)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volunteer)이다. 이들은 개별 교회에서 희

망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일부 교회에서는 약간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BISC의 다양한 행사들(event)을 돕는 것이다.

5. 활동

BISC는 다음 세 가지 활동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가. 조직 소개

조직 소개는 크게 다음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서의 강연이다. 영국 대학은 통상적으로 1학기가 10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대학에서는 첫 학기인 가을 학기(autumn term)에 Week0이라고 불리는 학기 시작 전 일주일 동안 외국인 유학생들 중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서 BISC 직원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BISC에 관한 안내 책자(brochure)를 배포하고 BISC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소식지(newsletter)의 발간이다. 현재 소식지는 연 2회 발간되고 있으며, 여름과 크리스마스 때에 발간된다. 그 다음으로 홈페이지의 운영이다. BISC 홈페이지는 BISC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BISC와 연락하는 법, 브리스톨 지역 등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facebook)²⁾, 트위터(twitter)³⁾ 등에서 BISC를 소개하는 것이다.

나. 행사

BISC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브리스톨 지역의 적응을 돕고 선교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강연이다. 강연은 주중에 이루어지는 weekly event와 저녁에 이루어지는 international eve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weekly event는 2013년 현재 일주일에 총 3번 즉,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월요일에는 다과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행사 때에 식사 또는 다과 비용은 무료인 경우도 있고 유료인 경우도 있으며, 유료인 경우에도 그 가격이 매우 싼 편이다. international evening은 대체로 식사 또는 차, 강연, 그리고 강연에 대한 집단 토론으로 구성된다. 필자가 연구년 동안 참가했던 강연의 주제는 인간의 기원에 관한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에 관한 것으로서, 과학과 종교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강연이 이루어졌

다.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booking) 및 등록(registration)을 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영국 여행(trip around the country)이다. 여행지는 다양하나 대체로 런던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다. 지역 안내

BISC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브리스톨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브리스톨 지역에 관한 다양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에는 브리스톨 공항, 대학들 및 어학연수원들(language centre), 여행, 거주지들(accommodation), 은행, 쇼핑, 여가(recreation), 교회 등이 포함된다.

III. 브리스톨 외국인 유학생센터가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 개선에 주는 시사점

BISC가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 개선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BISC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지역 주민들 및 외국인 유학생들 간의 상호연결

²⁾ BISC의 페이스북 주소는 <https://www.facebook.com/biscbristol>이다.

³⁾ BISC의 트위터 주소는 <https://twitter.com/biscbristol>이다.

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한국의 지역사회 조직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간,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교수들 간,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들 간의 연결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학업 및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의 세계 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을 함양하고 글로벌 리더십(global leadership)을 배양하며 국제 사회와 세계 문제들(global issue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상호 문화 이해(inter-cultural understanding)를 제고하고 이문화 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 능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운영 주체

BISC의 운영 주체는 교회이지만 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반드시 교회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운영 주체로 다른 종교단체들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기업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종교단체, 기업, 시민사회 등의 컨소시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기업이 참여할 경우 외국인 유학

생들의 취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서비스 대상

한국에서는 수도권에 대학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BISC와 달리 수도권의 경우 권역을 나누어서 권역별로 서비스 대상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종, 국적, 종교, 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없이 서비스의 제공 및 질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조직

조직은 BISC처럼 전일제로 근무하는 직원들과 시간제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운영 주체가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적절하며 서비스 대상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들 및 한국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의 경우 해당 대학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학생들도 이러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y)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의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5. 활동

한국에서도 BISC처럼 자기 소개, 행사, 지역 안내 등의 활동을 하되, 지역 안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역 안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숙사를 포함한 거주지 안내에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유치 차원에서 행사 중 강연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의 다국적 기업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회외국인 유학생 서비스 참여 방안에 관하여 영국 BISC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동반자(partner)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이러한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장을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손희권 |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손희권은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교장의 리더십 및 학교 개선에 관한 논문으로 교육행정 전공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영국 University of Bristol에 연구년을 다녀온 이후로는 KOICA ODA 교육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여러 과목들을 수강하였고,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국제다문화교육 전공을 신설하여 국제교육개발, 외국인 유학생 서비스, 스토리텔링 등에 관한 강의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제교육개발인적자원개발, 사회 변화, 지식 공유, 공공 외교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교장들의 리더십 및 경영역량 개발과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 컨설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국제교육개발에서의 자원인사(resource person)로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있고, 국제교육개발과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